

전남도, 추경예산안 13兆 제출... “민생 위해 조기편성”

본예산보다 5373억 늘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청년층 정착·인재양성 지원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전남도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5~6월 추진하던 1차 추경을 앞당겨 13조809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12조5436억원보다 5373억원(4.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4310억원(4.3%) 증가한 10조3932억원, 특별회계는 306억원(2.7%) 증가한 1조1692억원, 기금은 757억원(5.2%) 증가한 1조5185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33프로젝트(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000개,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기업 30개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당초 3억원) 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착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1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청년창업자 150명에게 월 100만원의 창업기술 개발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22억원(당초 28억원)을 증액

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5억원, 여수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에 1억원, 대미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1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9억원(당초 68억원),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8억원(당초 37억원)을 증액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1억원(당초

2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180억원(당초 11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원(당초 150억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사업 75억원(당초 75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75억원(당초 610억원), 글로벌대학 집중육성 지원사업 15억원(당초 150억원)도 포함됐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비 2억원도 더해졌다.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에 4억원, 전남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비 2억원도 반영됐다.

김영록 지사는 “민생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기를 앞당긴 만큼, 골목상권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정부에 획기적인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광주 잇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광주 송정역을 경유하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한다.

이번 신규 시외버스 노선 운행은 금호고속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버스 노선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 광주 송정역,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여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며,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오전 9시 10분(송정역 경유 09:30)에 출발,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는 오후 5시 10분(해양치유센터 경유 17:30)에 출발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울진군 ‘한방에 OK 수리반’ 확대 운영

울진군은 전구교체, 수도꼭지, 방충망 교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한방에 OK 수리반’ 서비스를 4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현재 전문인력 4명이 북부, 남부 총 2개조로 나뉘어 울진 전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갈 같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한방에 OK 수리반’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군위군 전입 군민 조기정착 ‘총력’

군위군이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입자의 안전한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지원금과 2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또한 각 세대에 소화기, 태극기, 최대 400리터 분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신고 시 제공하고,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군의 대표 관광지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도 1인당 5매씩 지급한다.

/군위(대구)=김준한 기자 kih9@

울산과학기술원, 실내 공기 떠도는 ‘독감 바이러스’ 신속포착 기술개발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
수분으로 바이러스 입자 잡고
종이면역 센서로 확인하는 방식

실내 공기에 떠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학교, 병원 등에서 독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은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를 손상 없이 잡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역학 조사에 쓰이는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방식과는 다르게,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이 시스템으로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먼저 공기를 기기 안으

로 빨아들인 뒤, 그 안에서 바이러스 입자에 수분을 묻혀서 잡고 이를 종이면역 센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기 중 바이러스는 작고 가벼워서 그대로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표면에 물방울을 입혀 크고 무겁게 만들어 잡는 것이다.

내부에 빠른 공기 흐름을 만들면 바이러스 물방울은 관성 때문에 공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집기 표면에 부딪히는 원리다.

포집기에 모인 바이러스 샘플을 종이면역 센서에 옮기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30분 안에 알 수 있다. 면역 센서는 단백질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검출 기술이다. 바이러스 표면의 헤마글루티닌(HA)과 핵단백질(NP)이 항체와 반응해 검출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 지원

행복상담소 통번역 제공

해남군은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출신 여성들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상담소는 자국민 안부 확인은 물론 각종 상담 등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상담 결과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나라별 비율에 맞추어 베트남 4명, 필리핀 1명, 중국 1명, 일본 1명을 선발해 사전교육 및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남군에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76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 중으로 베트남이 359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과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



해남군은 결혼이주여성에 통번역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해남군

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결혼을 통해 해남에 정착하고 있다.

한편 행복상담소는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한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함께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119신고, 42초마다 1건 접수”

지난해 총 75만3642건 접수

지난해 부산에서 42초마다 1건씩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 신고접수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한 해 동안 총 75만3642건이 접수돼 연평균 42초마다 한 건씩 접수된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건수는 2023년보다 1.7% 감소했다.

전체 신고 중 화재·구조·구급 등 실제 출동이 필요한 재난 신고는 27만390건(35.9%), 단순 안내나 오신고 등 비재난신고는 48만3252건(64.1%)으로 2023년 대비 각각 4.

1%, 0.3% 줄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 사고가 1만6647건, 구급 신고는 18만9872건, 구조 신고 3만8643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조 신고 중 34%는 별집제거가 차지했는데 이는 계절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지면서 벌 서식 및 활동기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 내용 특성은 두드러졌다. 공장이 밀집한 강서·사하·사상구는 대형 화재와 속보 설비 오작동 신고가, 산림면적이 넓은 기장군은 벌집제거와 동물 구조 신고가 많았다.

1인 가구가 많은 부산진구는 시건 개방과 엘리베이터 구조, 자살 신고가 많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본격화

기업, 대학, 기관 등과 ‘맞손’

광주시가 교통혁명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AAM) 산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시험·인증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토포모빌리티, 디에어, 지에프텍,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우주항공 연구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9개 기업·기

관이 참가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기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및 실증, 양성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특화단지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등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지난해 완공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진흥센터를 거점으로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집중화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장과 부품기업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전환) 등도 진행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경북도 ‘바로마켓 경북도점’ 정기 개장

경북도는 대구·경북 대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 경북도점’을 매주 토·일요일(오전 9시~오후 5시) 경북도농업자원관리원에서 정기 개장한다.

바로마켓 경북도점은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운영하는 대구·경북 대표 정례 직거래장터로 도내 100여 농가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물을 ‘바로파서, 바로와서, 바로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중 바로마켓 앱(APP)과 문자를 통해 주차별 할인판매 품목 및 장터 운영 소식을 전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